

이룸소식 2015 03호

안녕하세요. 2월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봄을 맞아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이룸소식을 전합니다.

### 조심스런 반등 이어간 2월

1월의 1.8% 반등에 이어 2월에도 종합지수는 1.9%의 반등을 지속하였습니다. 또 코스닥지수는 5.5%나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미 2014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어서 주가가 이미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고 또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작은 중소형주가 많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의 하락위험이 크지 않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식과 부동산 같은 투자자산으로 자금이 조심스럽게 이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오른 소비재종목들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기보다는 조정속에서 선별되는 과정을 거치고 신규 투자자금은 점차 대형주와 경기민감주로 확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종합지수 2000포인트 선에서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확인해야겠지만 전반적인 주식시장 상승가능성도 커졌습니다.

### 2월 운용경과

우리 이룸의 포트폴리오는 2월에 종합지수를 하회하는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지배구조 관련 종목과 소비재 일부 종목 그리고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주가조정에 진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룸은 최근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소

비재 비중을 조금 줄이고 경기 민감주 및 부품주를 얼마간 추가로 매수함으로써 이러한 시장흐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3월 증시 및 운용전망

세계경기가 느린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유가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며 최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저추세가 약화되고 아파트분양 등 내수면에서도 흐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국내 체감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 주식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월에는 추가적인 수익률 회복을 기대할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룸은 경기민감 대형주의 상승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 종목의 편입을 늘리고 경기회복시 수혜가 클 중소형주 발굴에 노력을 더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달에는 더 좋아진 수익률로 인사드리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28.

조세훈 올림 / 이룸투자자문 대표